



8월 19일(토) 11:3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	
담당	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	과장 송태복, 사무관 김동현 (044-200-2231, 2232)
	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정책팀	팀장 김영호, 사무관 박동희 (044-200-2379, 2380)

이낙연 국무총리, ‘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조치 최선 강조’

- 식약처와 농식품부 방문, 계란의 안전성 강화방안 주문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9일(토) 오전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결과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.

* 참석 : 김영록 농식품부장관,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○ 이번 방문은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(8.14) 이후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(8.18)된 후 후속조치 상황과 계란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회수·폐기와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,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.

□ 이어 인근에 위치한 대형할인 매장인 홈플러스 세종점을 방문하여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.